|  |  |  |  |
| --- | --- | --- | --- |
| **파견대학(원)** | 와세다대학교 | **파견국가/도시** | 일본/도쿄 |

|  |  |
| --- | --- |
| **제 목** | 역사를 대하는 태도 - 일년 반의 일본 생활을 마치며 |
| 2018년 3월 나는 일본으로 떠났고, 일본에 있는 동안 한국과 일본 사이의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됐다. 2019년 한국에서 불매운동이 시작된 이후, 한국에 있는 내 친구들은 내가 일본에서 혹시 나쁜 일 당하지 않을까 걱정했고, 반대로 일본의 친구들은 내가 일본에 있는 게 한국의 지인들에게 안 좋게 비춰지는 게 아닌지 걱정해줬다. 나는 분명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 양국이 협력, 보완 관계에서 같이 발전해 나가는 미래를 꿈꾸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고민하기 위해 일본에 갔는데, 상황은 악화되어만 갔고 걱정은 늘어나기만 했다. 하지만 그런 나에게 Campus Asia는 고민을 공유할 수 있게 해주었고 큰 깨달음을 안겨주었다.  - Campus Asia 프로그램 참여 동기  Campus Asia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아주 오래 전부터 일본에서 살아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초등학생 3학년부터 J-pop과 일본 드라마를 가까이했고, 6학년부터 일본어를 배웠었다. 한국과 일본이 역사적으로 민감한 관계에 위치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건 이미 내 안에서 일본이 굉장히 가깝게 느껴진 후였다. 대학생이 된 뒤, 그 민감한 관계를 직접 파헤치고 싶었다. 교과서를 벗어나, 한국 언론을 벗어나, 직접 일본에 가서 일본의 진짜 모습을 내 눈으로 바라보고 싶었다. 그래서 Campus Asia를 선택했고 일년 반 동안 와세다대학에서 국제정치경제학을 공부하게 되었다.  Campus Asia의 복수학위 프로그램에서는 일반 정규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수업을 듣고 세미나에 참여하고 동아리에 소속되어 활동할 수 있다. 나는 닛코리 (日本コリア未来プロジェクト)라는 한국과 일본의 미래에 대해 공부하는 동아리에 소속하여 활동하였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Campus Asia에서 여는 세미나 및 캠프에도 참여하게 된다. 나는 국제적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고민하는 세미나를 수강하였고, 방학 동안에는 약 2주간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 동아시아 평화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Campus Asia Intensive Program에 참여했다.  - 예상 외였던 일본의 역사 소비 방식  많은 일본인 친구들을 사귀게 되면서 몇몇 이들의 역사 소비 방식에 대해 많이 놀랐다. 한 친구는 야스쿠니 신사는 사실 굉장히 잘 꾸며져 있어서, 역사 의식을 제외하고 보면 최고의 관광지라고 말했다. 난 거기에 대고, 어떻게 역사 의식을 제외하고 보는 게 가능한지 차마 반문하지 못했다. 또 다른 친구는 욱일기가 왜 한국이나 중국에서 나쁘게 받아들여지는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 친구는 욱일기는 본래 어부들이 만선을 기할 때 쓰는 깃발이었고 전쟁 이전부터 이미 써왔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나는 차마 거기에 반박할 말을 생각해내지 못했다. 안중근을 희화화하는 만화책을 보며 희희덕 거리던 친구들도 떠오른다. 태권더 박 (テコンダー朴)이라는 만화책에는 ‘중근’이라는 태권도 기술이 나온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에게 총알을 세 발 쏜 것을 희화화한 것으로, 몸을 세 군데 찌르는 기술을 칭하고 있다. 그들은 ‘중근’ 이라 외치며 그 기술이 참으로 대단하다며 서로에게 장난을 쳤다. 난 뭔가 거북했지만 차마 그들을 말릴 수는 없었다.  이렇게 별 반성 없이 역사가 소비되거나 희화화 되는 현실은 지금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역사를 무겁게 다루지 않고 있었다. 단순히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 진지하게 과거의 시시비비를 따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나는 내가 이 친구들과 사이를 유지하기 위해선 어느정도 내가 가지고 있는 한국인으로서의 분노를 잊어야만 하는 것일까, 아님 끝까지 붙잡고 우리의 아픔을 의식하고 앞으로는 조심하도록 당부해야 하는 것일까 고민했다.  한국과 일본도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했다. 다른 역사 의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결국 함께 미래를 생각해야 하는 게 바로 한국과 일본이다. 마냥 서로가 서로를 배제할 수 없다. 이 때 양국의 관계 개선을 위해 역사를 살짝 잊어야만 하는 것일까? 역사가 희화화되어 어물쩍 넘어가려 하는 그 순간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반대로 너무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답이 나오지 않는 의문만 가득한 채 나는 한동안 답을 찾지 못했다.  - 히로시마에서의 감상  Campus Asia에서는 역사와 관련한 민감한 주제라도 속 시원히 꺼내보자는 취지로 Summer Intensive Program을 마련해주었다. 서로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서로의 이견을 이해해볼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다는 생각에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참가했다. 한국, 일본, 중국 및 다양한 국적과 전공의 학생들이 모여 약 1주일 간 히로시마를 방문했다. 그리고 와세다로 돌아와 약 1주일 간 각자 깨달은 것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관계 개선을 위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히로시마에서 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우리는 히로시마에서 열린 희생자 위령식에 참석했다. 그곳의 사람들은 피해자들의 아픔을 공유하며 평화를 외치고 있었다. 그들의 평화를 깬 핵무기가 우리나라에게는 평화를 안겨주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왠지 그들의 평화를 지지하고 싶지 않아진다는, 다소 이기적인 생각이 살짝 들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어떤 이유이거든 평화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들이 외치는 평화라 해서 반기를 드는 내 자신이 순간 참 초라해 보였다.  자위대를 방문하여 카미카제의 유언장을 보는 기회를 가지기도 했다. 내 옆의 일본 친구는 울컥한 표정으로 그들이 대단하다고 존경스럽다고 말했다. 그 옆에서 난 동의할 수 없었다. 나에게 있어 카미카제는 무능의 상징이며 조롱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돌이켜보니 그들 중 애국심을 가지고 일본을 지켜내고야 말겠다는 생각을 가진 젊은이와, 우리나라에서 대한독립을 이뤄내고야 말겠다며 계란으로 바위를 친 많은 독립투사와 결국은 비슷한 입장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우리가 존경하는 독립투사인 안중근을 일본이 조롱의 대상으로 삼는 것도, 우리가 카미카제를 조롱의 대상으로 삼는 것과 비슷한 거였을까 생각했다.  - 점점 이해하게 되는 우리  히로시마에서 돌아와 소감을 공유하는 자리에서 한 일본 친구는 전쟁의 책임에 대하여 “America is guilty”라며 미국을 비난했다. 난 일본에게 책임이 있었다며 그들이 행한 온갖 나쁜 일들을 그의 앞에서 나열했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그러한 모든 행위가 다 미국과 서양국가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말했다. 서양국가가 애초에 아무 짓도 안 했다면 일본은 전쟁에 참여할 이유도 없었고 핵을 맞을 이유도 없었다는 것이었다. 난 이 이야기가 단순히 한 학생의 의견이 아니라는 걸 안다.  대체 왜 일본인들은 억울해할까? 그 이유를 찾기 위해 프로그램 기간 동안 많은 친구들과 이야기했다. 그들은 나에게 다른 국가를 식민 지배하는 게 사실 일본의 국제 정세상 어쩔 수 없었던 판단이었다고 이야기했다. 후쿠자와 유키치의 말을 빌리면, 일본은 서양 국가에게 지배받지 않고 아시아 국가로서 독립하고 싶어했고, 먼저 근대화를 이룬 자기들이 상대적으로 힘이 약했던 이웃 국가들을 발판으로 힘을 강력하게 만들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도 또 다른 서양 나라의 식민지가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라며 말이다. 일본 친구들로부터 직접 이 이야기를 들으니 그들이 왜 그때 일본이 식민지배라는 선택을 했어야 했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다. 물론 그 선택을 이해를 했다 해서 그들의 악행까지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들이 왜 매번 억울해하는 태도를 취하는지 그 이유를 조금은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그들의 태도를 이해해줬으니 반대로 난 그들이 우리가 왜 매번 사과를 요구하는지 그 이유를 조금은 이해해줬으면 하는 바램이 생겼다. 학살과 상처들은 쉽게 씻어지지 않는다는 점, 한국처럼 민족성이 강한 국가가 그 민족성이 묵살되는 식민지 같은 상황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하는 점, 일본 측의 사과는 있었지만 그 모든 상처들의 책임에 대한 인정은 쉽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말이다. 프로그램 동안에 이와 같은 내용을 최대한 어필하려 노력하였고, 많은 일본 친구들의 이해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프로그램이 끝난 후, 무작정 길을 걷다 보니 옆에 야스쿠니 신사가 있었다. 그리고 난 같이 길을 걷던 일본인 친구와 자연스럽게 일본의 정치인들이 야스쿠니 신사에 방문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했다. 과거 한국인을 학살한 당사자들, 침략전쟁에 가담한 전쟁 범죄자들 역시 일본인의 입장에서는 일본을 위해 목숨을 내놓은 애국심 높은 사람이라는 일본 친구의 말을 듣고 나서, 개인의 신념에 따라 그 곳을 방문하는 일본인들을 무작정 비난하지는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을 국가가 나서서 기린다는 건 굉장히 꺼려지는 일임을 이야기했고, 그 친구도 동의해주었다.  결국 내가 찾은 결론은 상처에만 얽매이지 말고, 그렇다고 역사를 아예 잊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민감하다고 해서 계속 이야기하기를 숨기거나 감정이 앞서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 Campus Asia에서는 서로의 입장에서 왜 한국은, 왜 일본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지 이야기 나눠야 하고, 각자의 입장을 이해해보려 노력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말해주었다. 서로 이해해보려는 마음을 가지니 민감한 주제였지만 서로의 감정은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많은 것을 배워갈 수 있음에 놀랐다. 이렇게 하나씩 이해해가는 게 결국 화해를 향한 첫 걸음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다.  - 맺으며  한국과 일본 양쪽에서 살아봤고 양국의 대학도 졸업한 입장에서, 이제 난 한국과 일본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싶다는 사명감을 가지게 되었다. 일본에서 일년 반을 보내며 난 일본을 이해해보려 했고, 혹여나 우리에게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돌이켜봤다. 그들의 역사 의식에 가끔씩은 충격을 받기도 했지만 그들의 입장에 공감하기도 했으며, 더 나은 한일 관계를 위해서는 이런 공감이 굉장히 중요함을 깨닫기도 했다. 이러한 이해와 공감이 가능하게 된 건 Campus Asia가 마련해준 자리 덕분이며, 앞으로도 여러 국적의 친구들과 민감한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자리가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번 체험 수기를 통해 ‘이 시국에’ 일본에서 생활하며 해왔던 고민을 함께 공유하고 나의 깨달음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 그리고 여기에서 앞으로의 한일관계 회복을 위한 실마리를 조금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다. | |